

산업체의 해외진출과 산업보건



언제

부터인가 동남아국가부터 시작된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아시아 전역을 넘어 아프리카와 동유럽국가 출신의 노동자까지 가세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에 와있는 이주노동자수는 약 40여만명에 이르고 있다. 주로 민간단체에서 시작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산업보건사업을 포함한 복지사업 등을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다루려하나 수많은 관련문제가 있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닌듯 싶다. 1960년대 중반 우리나라가 벗어날 길이 없는 것 같은 가난에서 탈출하고자 광업과 간호인력을 해외로 파견하였던 우리나라가,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불거진 일이어서 이 또한 급변하는 국제사회상 중의 하나로 보인다.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이후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산업체가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동남아로 이주하기 시작하였고, 3D 등의 이유로 해외로부터 우리나라로 이주노동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결과로 기억되며 급기야는 '韓流와 反韓 대한민국'의 두 얼굴이라는 제하의 신문기사가 우리를 걱정스럽게까지 하였다.

지금은 해외유학이라는 것이 어려서부터 할 수 있는 보통의 일이 되었고 고등교육을 필한 후 해외유학을 하고 귀국해도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아 고급유휴인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대부분의 학문분야에서 해외유학은 우리나라에서 '자리'가 보장되는 조건중의 하나였다.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선진국에서는 해외유학생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연구실의 인력보완과 교육수입의 확대 및 자국의 국력향상에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일본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시행하고 있는 JICA 프로그램도 일본의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몇몇 분야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의 유학생을 일부 대학교에서 받기 시작한 이래 적지 않은 수의 학생이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중국 등을 포함하여 동남아에서 연구생을 받아들이고 있는 기관도 있다.



이 세 훈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우리나라에서 WHO 등의 지원으로 개발도상국의 전문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러 학자들이 해외학회 등의 연수에 혜택을 받기도 하였다. 1998년 9월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생물학적모니터링에 관한 제4차 국제학술포럼때에는 WHO의 후원하에 동남아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10여명의 학자에게 개최기관이었던 대한산업보건협회가 그들이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적이 있었다. 더욱이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1999년에 한몽골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시작한 이래 2001년에는 베트남과 태국의 산업보건관련 공무원을 초청하고 있고 다음해부터는 동남아 10개국에서 15명의 단기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이제는 그야말로 OECD국가에 걸맞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 딱 다행한 일로 보아진다.

1970년대 초에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 후 1980년대에 자주 있었던 노동운동 등의 이유로 일본국적의 모 기업체는 결국 손을 들고 만 일이 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0년대 이전에는 산업보건은 뒷전이었고 이용자는 생산성 향상이, 노동자는 높은 임금이 우선이었다. 2000년 8월 말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던 제26차 ICOH학회에서 중국의 한 여성이 중국으로 진출한 외국국적산업체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해 발표한 내용에서 유기용제의 노출수준이 매우 높았었던 것(벤젠의 경우 20ppm이상이었음)이 기억이 난다. 설마 우리나라 기업체는 아니겠지 하는 우려와 동남아 등 여러 해외국가로 진출한 기업체들의 현황은 어떨지 하는 의문이 생겼다. 1996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 25차 ICOH학회에서 싱가포르의 Jeyaratnam교수는 자유무역에 따른 산업체의 globalisation의 영향에 대한 기초연설에서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 혹은 후진국으로의 산업체의 이동에 따른 단점으로서 싼 임금, 부적절한 관리시스템 및 수준 낮은 산업보건서비스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급선무로 다루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해외에 수출 혹은 진출한 기업체에 대한 산업보건사업에도 관심을 가질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자칫 선진국에서 겪었던 산업안전보건문제를 우리나라를 거쳐 동남아 등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는 문제를 유발하여 해당 기업체 뿐 아니라 우리나라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표적인 한 예로 이황화탄소중독이 있다. 일본에서도 레이온공장에서 1950~60년대에 많은 이황화탄소중독환자가 발생되었다. 경제발전을 위하여 1962년에 설립되었던 모 기업체가 일본의 도레이레이온사에서 사용하던 중고기계를 들여와 외화지출을 감소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840명의 이황화탄소중독환자를 발생시켜 큰 사회문제를 유발한 후 1993년에 폐업하고 그 기계는 이웃나라로 건너가

현재 작동중(?)이어서 언제 문제를 일으킬지
사뭇 염려된다. 한국, 일본, 중국간의
산업보건전문가의 친선도모와 학술
교류를 위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일중 산업보건학술집담회와
그 관련기관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볼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한필**

